

# 어린이집 출혈성 장염 가족까지 확산

### 어린이집 원아 7명·가족 1명 등 8명 잇따라 양성 판정 보건당국, 휴원 조치 후 전수조사... 상황 뒤늦게 공개

제주지역 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와 그 가족들이 제2급 법정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출혈성 장염)에 잇따라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내 A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7명과 이들 원아 중 일부와 접촉한 가족 등 모두 8명이 출혈성 장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어린이집발 출혈성 장염'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지난달 24일이다. 이날 A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1명이 설사와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일주일이 지난 6월 1일 해당 원아가 출혈성 장염 환자로 의심된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역학 조사에서 최초 의심 증상을 보인 원아 1명을 비롯해 같은 반에 다니는 원아 5명, 다른 반의 원아 1명 등 7명이 출혈성 장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된 7명 원아 중 2명은 남매 사이로 서로 다른 반에 다니고 있다.

보건당국은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 8일 A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조치하는 한편,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직원 14명, 나머지 원아 26명, 가족 등 모두 46명에 대해 전수 역학조사에 돌입했다.

전수 역학조사에선 나머지 원아와 직원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남매 원아와 접촉한 아버지 1명이 추가 양성 판정

을 받았다. 이로써 'A어린이집발 출혈성 장염' 환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출혈성 장염은 병원성 대장균의 일종인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돼 발생하며, 2~10일(평균 3~4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과 설사, 혈변,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5~7일 동안 증상이 지속하다 대체로 호전되지만,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사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다행히 양성 판정을 받은 A어린이집 원아 중 HUS 증세를 보인 원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A어린이집발 출혈성 장염 감염 사태'를 일반에 알리지 않다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공개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도민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감염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워낙 경황이 없었던 것 뿐이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당국은 원아들이 먹은 음식 등 감염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혈성 장염은 5세 미만 영유아에서 가장 많이 발병한다. 2011~2016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감염된 우리나라 환자 443명 중 0~4세가 161명(36.3%), 5~9세가 68명(15.3%)으로 전체 환자의 51.7%를 차지했다.

출혈성 장염은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음식은 잘 익혀 먹으며 채소와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 먹는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도, '제주카페스타' 집합제한조치 발동 위반시 벌금 징수·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방침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급증에 따라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에 대한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대회 개최와 참석은 가능하되, 위반 시에는 벌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11~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주최 측과 참석자에 대한 집합제한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도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1일 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집합 행사에 대해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0일 '제1회 다저 전국출품토포니먼트 대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조치이다. 다만 집합금지명령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도는 집합제한조치에 따라 행사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행사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개최와 참가를 허용

하되, 만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집합금지조치 위반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지난 9일 서귀포시를 통해 주최 측에 전달했다.

한편 올해 4회째를 맞는 제주 카페스타는 커피, 차, 카페 관련 인더리어 소품 등 전시 및 커피제조업체, 원두, 머신 판매업체와 카페운영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박람회다. 백금탁기자

## IUCN 지정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사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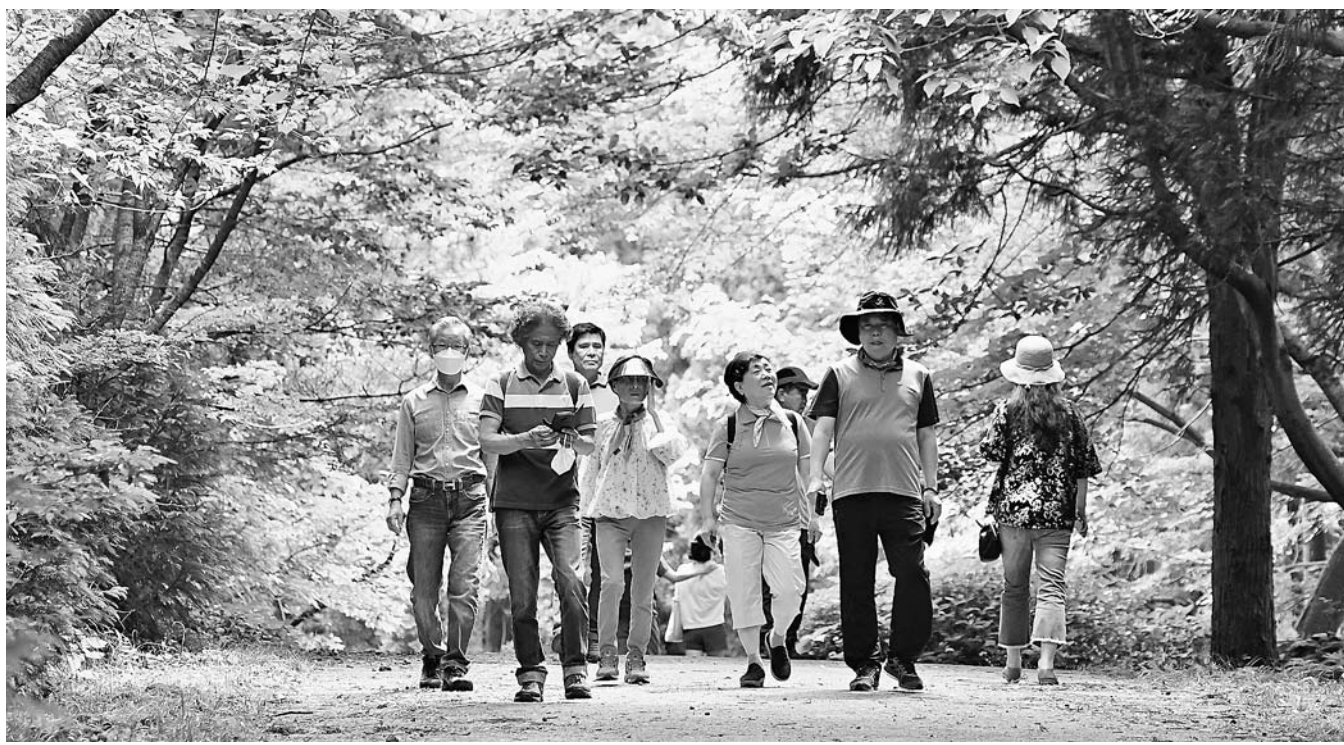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제주 해상에서 발견됐다. 10일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2분쯤 제주항 제1서방파제 테트라포드 인근 해상에서 거북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해경이 접수했다.

조사 결과 이 거북은 길이 103cm, 폭 80cm의 푸른바다거북으로 죽은 지 10일 정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등에 난 상처로 미뤄볼 때 선박 스크루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푸른바다거북 사체 뒷다리 등에는 일본 해양연구소가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개체 인식표 3개가 달려 있어 일본에서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푸른바다거북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몸 길이는 0.7~1.2m, 몸무게는 90~140kg 정도이다. 이상민기자



사려니숲의 선물, 여유 10일 제주시 조천읍 사려니숲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녹색의 숲속을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다. 이상국기자

## 도,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제주지역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가스(LNG)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시가스 소외지역인 농어촌 등 에너지 취약계층 연료 환

경 개선을 위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150세대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소유의 유휴 부지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세대 각각에 배관을 연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마을당 사업비는 3억원(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이며, 세대당 평균 1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노후배관 철거 및 급속배관 교체, 가스안전장치 설치비 및 보일러 교체비 등이 지원된다.

참여 조건은 마을 소유의 유휴 부지가 있어야 하고,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세대 밀집도(도로 100m당 20세대 이상 세대 분포)가 높아야 한다. 백금탁기자

##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결과는...

### 검찰, 무기징역 구형... 법원, 1심 무죄 선고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모(5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고

내방 인근 도로에서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2018년 범인을 박씨로 지목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

랐다. 2018년 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검출된 섬유가 박씨가 입은 옷의 섬유와 박씨 택시 안에서 발견된 섬유와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박씨를 붙잡아 범행에 세웠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면 섬유의 특성상 피해자 옷과 신체에서 발견한 섬유와 박씨 옷과 택시에서 검출한 섬유가 서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한 미세섬유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인 측은 1심 증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무죄라고 맞섰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인생이 엉망진창됐다"며 억울해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칼슘비료+코코리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칼슘비료**  
 토양의 pH를 낮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G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비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알은 먹음 형성에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옥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NAVER D2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 · 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시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